

-도록

~하도록(목적), ~할 정도로(한도)

행동의 목적이나 한도를 나타냅니다. -(으)려고와 달리 두 절의 주어가 달라도 되며, 바로 이 점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도록	않다 → 늦지 않도록
ㄹ 어간은 ㄹ 유 지	-도록	만들다 → 만들도록
주어가 다름	가능	아이들이 보도록 크게 썼어요
정도, ~할 때까지	-도록	밤이 새도록
부드러운 지시	-도록 하다	늦지 않도록 하세요
시제 불가	어간만 씀	갔도록(×)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어간에 -도록을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

주된 용법은 목적: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세요.입니다. 중요한 점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과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: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썼어요. -(으)려고로는 이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.

두 번째 용법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, ‘~할 때까지’에 가깝습니다: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어요 (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했다), 목이 아프도록 노래했어요.

하다와 결합하면 -도록 하다가 되어, 직장이나 안내문에서 흔히 쓰는 부드러운 지시가 됩니다: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세요. 명령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말하므로 단순 명령형보다 부드럽습니다.

■ 예문

- 1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세요.
- 2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썼어요.
- 3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.
- 4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.
- 5 약속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었어요.
- 6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 주세요.

■ 비교

-(으)려고
-(으)려고는 주어가 하나여야 하고 자신의 의도를 나타냅니다. -도록은 주어가 둘이어도 되며,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목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.

사려고 돈을 모아요. (사기 위해 모은다) / 아이가 사도록 돈을 줬어요. (아이가 살 수 있게 돈을 주었다)

-게 하다
-게 하다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, -도록 하다는 그렇게 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. 뒤의 것이 훨씬 부드러우며 공손한 지시에 자주 쓰입니다.

일찍 오게 했어요. (일찍 오게 만들었다) / 일찍 오도록 하세요. (일찍 오도록 해 주십시오)

-기 위해서
역시 목적을 나타내며 추상적인 목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태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일 때는 -도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

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해요. /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해요.

■ 주의

- ✗ 아이들이 잘 보려고 크게 썼어요.
- 아이들이 잘 보도록 크게 썼어요.
-(으)려고는 두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. 이 문장에서는 보는 사람은 아이들이고 쓰는 사람은 나이므로 -도록만 쓸 수 있습니다.
- ✗ 감기에 걸리지 않았도록 조심하세요.
-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
-도록은 시제를 받지 않습니다. 목표는 앞으로의 일이므로 어간만으로 충분합니다.
- ✗ 저녁을 만들도록 하세요. — ‘그녀에게 요리를 시켰다’는 뜻으로 쓴 경우 (×)
- 저녁을 만들게 했어요.
-도록 하다는 듣는 사람에게 하는 지시입니다.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켰다고 전할 때는 -게 하다를 쓰십시오.